

무형유산의 정수 ‘전통예능의 품격’

국립무형유산원, 9~17일 금·토 ‘보이는 숨소리, 들리는 몸짓’ 주제 공연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6월 9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금요일 오후 7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쑤마루 공연장에서 해설과 함께 하는 ‘전통예능의 품격’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통예능의 품격’은 무형유산의 정수(精髓)를 느낄 수 있는 정통공연으로, 이번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보이는 숨소리, 들리는 몸짓’이라는 주제로 올곧이 예인의 삶을 살아온 명인들의 삶과 작품을 조망하는 무대로 준비했다.

첫 공연은 윤중강 국악 평론가가 해설자로 참여해 ‘보이는 숨소리’를 주제로 남성 명무(名舞) 3인의 무대가 펼쳐진다. 정엄한 궁중무용을 보여줄 차용무 전승교육사 이진호의 무대를 시작으로, 화려한 법고(법고 외식 때 쓰는 작은 북) 소리를 들려줄 승무 보유자 채상복, 그리고 옛 선비의 고고한 자태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한량무 보유자 조흥동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이어 두 번째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정준태 전승교육사가 해설자로 참여하며, ‘들리는 몸짓’을 주제로 농악과 탈춤 총 2부로 구성된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1부에서는 시대를 풍자하는 은율탈춤 중 제5과장 노승춤을 보여줄 은율탈춤 박일홍 보유자를 시작으로, 거울을 보는 듯한 동작의 ‘책경복’과 다리 동작인 ‘제기복’ 등을 표현하는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 정인삼, 사회적 메시지를 극복해 진정한 해방을 이룬 모습의 문동춤을 선보일 통영오광대 전승교육사 이강용, 설장구 공연으로 장구 놀음의 극치를 보여줄 우도농악 보유자 김동연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영남지방 특유의 채상소고놀이를 보여줄 진주삼천포농악 보유자 김선옥, 직접 창안한 모듈개끼춤을 선보일 양주별산대놀이

전승교육사 석종관, 가부장제 아래 남성의 횡포를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동래야류 중 할미과장을 보여줄 전승교육사 손심심, 빠르고 강렬한 상쇠놀이를 선보일 김천금릉빛내농악 보유자 손영만의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1일 선착순 200명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 가능하다. 토요일 오후 4시 공연은 네이버TV의 국립무형유산원 주소(<https://tv.naver.com/nihc>)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품격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 현대문학 아름다움 대만에 알려

전북대 이숙연 교수 번역서, 대만 우수한국번역도서상 수상

전북대학교 이숙연 교수(중어중문학과)가 번역한 박범신 소설가의 ‘고산자(古山子)’가 ‘2023 대만 우수한국번역도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소설의 번역은 이숙연 교수가 지난 2010년 대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한국문화번역·연구·출판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산자’는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을 작가의 인문학적 통찰력과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것으로, 조선시대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부친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지도를 제작하며 운명에 고개 숙이지 않는 분투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대산문화재단의 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만에서 출간돼 한국 현대 문학의 아름다움을 외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상은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영어와 일본어 다음으로 대만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한국 문학 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우수 번역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숙연 교수는 “한국 현대문학의 아름다움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했던 일이 대만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대만에 한국 문학의 다양성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숙연 교수는 이 작품 외에도 중국 현대문학 분야에서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변요한’ 출간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함께 도서 완성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함께 완성한 도서 ‘넥스트 액터 변요한’을 6월 2일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일에 정식 출간한다.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로 배우 변요한이 선정된 가운데 배우 변요한을 집중 조명한 도서 ‘넥스트 액터 변요한’이 오는 2일 정식 출간된다. 도서 ‘넥스트액터’ 시리즈는 무주산골영화제와 백은하 배우 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넥스트 액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우 박정민, 고아성, 안재홍, 전여빈이 차례로 출간되어 국내 영화팬들에게 애장서로 떠오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도서 ‘넥스트 액터 변요한’은 〈들개〉 〈박정규〉, 〈소설포비아〉 김지웅, 〈미생〉한



석울’, 〈당산, 거기 있어줄래요〉한수현’, 〈자산어보〉장창대’, 〈한산〉와키자카’까지 총 6개의 대표 캐릭터를 중심으로 변요한이 각 캐릭터와 마주하고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현장에서의 기억을 자세하게 들려준다.

또한 백은하 소장의 ‘변요한 배우론’과 함께 변요한이 배우를 꿈꾸던 시절부터 충무로의 전설로 손꼽히는 배우 김윤석, 이병헌, 설경구, 박해일, 송강호와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도 털어놓은 적 없는 변요한의 솔직하고 방대한 인터뷰가 담겨 있다.

이처럼 배우 변요한의 뜨거운 심장 박동을 읽을 수 있는 도서 ‘넥스트 액터 변요한’은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 일반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다.

한편 3일에는 무주등나무운동장 낭만스테이지에서 변요한 배우의 아티 토크가, 4일에는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변요한 배우의 단편 출연작 〈재난영화〉〈타이레놀〉〈Nowhere Boy〉를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또한 그의 숨겨진 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넥스트 액터’ 특별 전시 [‘배우’로온 변요한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가 무주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등 ‘넥스트 액터’의 다섯 번째 주인공 배우 변요한이 영화제 기간 중 다양한 형태로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문화의 날 행사 ‘킹제’ 개최

김제시는 오는 3일 15시부터 21시까지 김제향교(김제시 교동 39) 앞 광장에서 ‘김제시 문화의 날X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킹제’를 개최한다.

행사의 주제는 청년과 기성세대의 상생을 꿈꾸는 ‘청춘 한마당’이다.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청년단체인 ‘농촌을 보고 배우다’,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사업을 주관하는 김제시 농어촌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기존의 행사들과 차별화했다.

행사는 크게 아트장터, 프리마켓, 문화공연으로 구성되며, 주요 행사 내용은 △작가들의 미술작품 전시 및 판매 부스 △캐리커처·캘리그래피·페이스 페인팅 체험 부스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30여 개 프리마켓, 아시장, 농특산물직거래장터 △문화공연(박태영 매

직쇼·리운 서커스·김성수 재즈콘서트) 등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과 기성세대가 문화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시민 모두가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본 행사를 통해 김제시 문화의 날을 알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문화의 날’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북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매월 마지막 주일을 문화의 날 주간으로 지정, 관내 문화시설과 단체 등이 진행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고,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 협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여름을 모시다’ 기획상품전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코로나19 이후 첫 여름을 맞아 ‘여름을 모시다’ 기획상품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상품전은 방학을 맞아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주공예품전시관에 입점 상품 중 여름시즌 판매량이 높은 상품들로 구성했다.

기획상품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현장과 온라인 소량볼 명인볼

(www.jshop.or.kr) 통해 구매 가능하다.

상품군은 △부채 △식기 △액세서리 등 여름철 사용 빈도가 높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공예품 10여 종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로 ‘합죽선’과 ‘단선’이 있으며, 백자로 만든 ‘술잔세트’와 ‘종지세트’, 투명한 유리 소재로 제작한 ‘식기류’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액세서리로 ‘팔찌’ 그리고 모시로 제작한 ‘북마크’, ‘매트’ 등이 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은 기획전상품을 포함해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선 도자 상품인 ‘청화 드로잉 수저받침’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더운 여름, 공예품을 활용해 시원하고 청량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여름나기 공예품으로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www.jonjucraft.or.kr)또는 공예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제1기 익산어린이박물관학교 학생 모집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제1기 익산어린이박물관학교’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박물관학교는 6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월 2·4주 토요일에 열린다. 수업은 국립익산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자들의 강의 외에도 전시실 관람, 유적 탐방, 문화유산 콘텐츠 체험 등 다채롭게 이뤄져 있다.

국립익산박물관 교육 담당자는 “우리 어린이

들이 익산어린이박물관학교에서 배우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재학 중인 5~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5명까지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iksan.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